

“오디오 경력 다 합치면 300년 넘어요”... 자부심 대단

Q & A | 첨단 사운드 기술력의 산실 ‘삼성전자 오디오랩’ 가보니

“삼성전에서는) 오디오랩을 IT의 중심인 실리콘밸리에 만들자고 했지만, 우린 공부벌레가 아닌 음악가들이라 LA를 고집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삼성전자 오디오랩의 앨런 드벤처어 상무는 LA의 연구소 설립 비화를 이렇게 말했다.

2013년 말에 설립된 삼성전자 오디오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벤처어 상무는 “오디오랩은 음악가와 엔지니어 등 실제 음악 전문가들이 오디오를 만들면서, 원작자가 의도한 바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음향 관련 기기(오디오를 비롯해 TV, 스마트폰, 등가지)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전자 오디오랩 임직원은 박사 4명과 석사 7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근무한다. 이들 중 한 연구원은 지금까지 4개 앨범을 발표한 LA 로컬밴드 ‘하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원은 밴드에서 드럼을 치는가 하면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드벤처어 상무는 “오디오랩 근무자들은 공연은 아니더라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의 오디오 분야 경력을 다 합치면 무려 300년이 넘는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 역시 지난해 삼

엔지니어 중 현재 뮤지션도 근무
美 컨슈머리포트서 최고등급 평가
종합전자제품 브랜드로선 이례적
올 CES서 ‘슬림형 사운드바’ 호평

성전자가 인수한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음향 전문가다. 설립 초기부터 합류해 근무 중이다.

삼성전자 오디오랩은 겉에서 보기에는 일반 사무실과 비슷하다. 그러나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스피커의 진동을 실시간 측정하는 첨단 컴퓨터 장비에서부터 소리를 100% 빨아들이는 무반향실, 음향의 반사를 느낄 수 있는 청음실, 여러 음향기기를 선입견 없이 비교할 수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실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을 갖췄다.

삼성전자가 오디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에는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소비자는 디스크 없이 무선으로 스트리밍을 통해 사운드를 즐기면서도, 스피커의 음향 수준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TV 시장도 고화질, 초대형 TV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걸맞은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와 더불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발렌시아에 위치한 삼성전자 오디오랩 전경. /삼성전자

오디오로도 보다 섬세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삼성전자 오디오랩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변화에 맞춰 TV, 오디오 등 음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성과는 설립 초기부터 나오고 있다.

첫 성과물은 지난 CES 2015에서 공개한 ‘무지향성 무선 360 오디오’ 제품이다. 이 제품은 어떤 공간에 위치해도 360도 전방위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또한 삼성전자가 TV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Q7, Q8 시리즈 12개 모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드벤처어 상무는 “오디오 전문 브랜드가 아닌 종합 전자제품 브랜드로선 이례적”이라며 “오디오 기술로만 승부한 결과라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미국리서치 오디오랩의 앨런 드벤처어 상무가 무반향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올해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서 공개한 슬림형 사운드바(모델명 NW700) 역시 오디오랩의 성과다. 두께를 기존 제품보다 41% 줄여 얇은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저음을 내는 우퍼 4개를 포함해 7개의 스피커를 내장해 풍부한 음향을 내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제품에는 오디오랩이 독자 개발한 ‘디스토션 캔슬링’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스피커 유닛의 움직임을 실시간 예측해 사운드 왜곡을 줄이고 우퍼의 움직임을 조정해 웅장한 베이스음을 구현했다.

드벤처어 상무는 “이번 CES를 보면 음

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AI) 대체화, 자율주행차 시대에 따른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장 성장, 오디오기기와 전자디바이스간 연결성 확대 등으로 오디오 경쟁력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오디오랩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인수한 오디오 브랜드 하만은 마크레빈슨을 비롯해 하만카돈, AKG, 인피니티, JBL 등 다양한 오디오 브랜드를 갖고 있어 향후 하만의 오디오 기술력과도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美 이어 국내서도 인텔 상대 집단소송 추진

>> 1면 ‘추가결함에 집단...’서 계속

인텔 CEO, 270억원 주식 차익
기관투자자들 관련 소송 검토중

해리 신토넨 F-시큐어 선임 보안 컨설턴트는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해커가 각 부서 컴퓨터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며 “로컬 방화벽, 악성코드 퇴치 소프트웨어 같은 보안 조치로 이번 결함에 따른 문제는 막을 수 없다. 각 기업이 AMT 보안을 강력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인텔에 대한 집단소송도 가시화되고 있다. 오레곤,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12건 이상의 집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인텔 CEO, (셔츠) 비즈니스 와이어

단소송이 접수됐다. 인텔이 CPU 결함을 파악하고도 제때 대처하지 않았고 CEO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등 고위 임원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이유다.

CPU 취약점이 일반에 공개된 후 45.26달러였던 인텔의 주가는 지난 10일 42.50달러까지 떨어진 후 다소 회복해 지난 12일 43.21달러로 장을 마쳤다.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매도 가능한 주식 전량을 팔아 벌어들인 차익은 약 2500만 달러(약 270억원)에 달한다.

인텔 기관투자자들은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CEO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도 인텔에 대한 집단소송이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담우는 집단소송 참가신청을 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오세성 기자 sesung@

롯데케미칼 고부가 설비 증설에 500억 투자

생산력 기준 두배인 84만톤으로
수익성 강화로 ‘세계 1위 굳히기’

롯데케미칼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울산공장의 고순도이소프탈산(PIA) 생산설비 증설 계획을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PIA는 PET, 도로, 불포화 수지 등의 원료로 쓰이는 제품으로, 세계에서 7곳의 업체만 생산하는 고부가 제품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4년부터 세계 1위의 PIA 생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존 46만톤 규모 생산설비를 약 84만톤으로 늘리면 세계 1위 PIA 공급업체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공장에 증설되는 PIA 생산설비는 기존 고순도테레프탈산(PTA)과 병산이 가능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경쟁력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이 뛰어난 제품 생산을 늘려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은 “치열해지는 세계 석유 화학 산업에서 한발 빠르고 과감한 결정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더

욱 탄탄하게 만들 것”이라며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업 구조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끊임없이 고민하자”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포스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전경.

/포스코

인니 포스코 제철소, 4년 만에 흑자 전환

누적 판매 1000만톤 돌파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제철소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가동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며 누적판매 1000만톤을 돌파했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가동 첫 해인 2014년 170여만톤을 판매한 이래 2016년부터는 280만톤 수준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 15일 누적 판매 1000만톤을 돌파했다.

특히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최근 지난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약 12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사상 첫 흑자로 전환했다.

2013년 12월 가동한 크라카타우 포스

코는 생산능력 300만톤 규모의 동남아 최초 일관제철소로,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이 각각 70%, 30%씩 투자했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등 그룹사 자체 역량을 총 집결시켜 크라카타우 포스코를 건설·운영해왔으며, 4년여의 노력끝에 동남아 최고 철강사로 우뚝서게 했다.

인도네시아도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가동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고품질의 철강재를 자체 조달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린 것은 물론, 철강 수요 산업의 경쟁력도 대폭 높였다.

/양성운 기자 ysw@

KT ‘배터리절감’ 기술로 음성통화 시간 ↑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음성통화를 할 때도 스마트폰 배터리 효율이 최대 50% 가량 늘어난다.

KT는 15일 음성통화 시 배터리 소모를 절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전국 롱텀에볼루션(LTE) 상용망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데이터 배터리 절감 기술(C-DRX)을 롱텀에볼루션(LTE) 전국 망에 적용한 데 이어 이 기술을 음성통화

까지 확대 적용했다.

KT는 이를 활용해 올해 초 진행된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에서 애플의 ‘아이폰X’ 모델로 배터리 절감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음성통화 이용시간이 최대 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T의 LTE 가입자라면 음성통화 시 배터리 사용시간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